

2018 새해 새 설계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공정 입·낙찰제 도입...회원사 수주 확대”

지역업체 수주 영역확대 지원
불합리한 건설제도 발굴·개선
표준폼셈·표준단가 합리적 조정
장학사업·이웃돕기 지속 추진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업체가 최대한의 수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물량 확보와 수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10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OC 투자예산에 대해 중장기적인 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대와 희망을 놓을 순 없다”며 “올해도 회원사의 수주 확대와 애로사항 해소, 소통·친목 강화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제한된 공사물량 내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여전히 시공단가와 괴리가 있는 표준폼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뿐 아니라 17년동안 고정된 낙찰률을 10% 상향추진하고 원가계상 누락과 예정가격 삭감 등 잘못 산정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기업이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상시보유 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기술자 및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차별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입·낙찰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중합건설업체의 업역을 침해할 소지가 큰 기계설비·소방설비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법안 제·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화와 16개 시·도회가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며 “전년도에 비해 발주가 약 60% 감소한 주택약자형 공동도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학사업과 취약시설 지원 확대 등 지역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이다.
김 회장은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민과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취약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지역건설업체에 업계 스스로 환경변화에 적응해 생존·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건설경영 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가상화폐 계좌 실명전환 거부시 불이익

기존계좌 입금 제한 이달말 시행...‘벌집계좌’ 차단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에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더 많은 제약을 뒤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거래소 역시 기존 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이라는 2개의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고객들을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므로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구축(驅逐)하는 효과를 낸다. /연합뉴스

호남권 교량 공사 32곳 연내 마무리

익산 국토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은 내진 보강이 필요한 호남지역 국도 교량 132곳에 대한 공사를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모든 국도에 위치한 교량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했으며, 호남지역 국도 교량 중 132개소가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교량 100개의 내진성

한국전력 ‘미디어콘텐츠공모전’ 시상식



한국전력(사장직무대행 김시호)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 미디어콘텐츠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니영화, 사진, 디자인 등 3가지 부문에 걸쳐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린 이번 공모전은 미니영화 263건, 사진 1175건, 디자인 226건 등 총 1664건의 작품이 접수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문가와 네티즌의 심사를 거쳐 미니영화 21건, 사진 44건, 디자인 27건 등 92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에는 3개 부문 대상과 금상·은상·동상 수상자 25명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시호 사장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려는 마음에서 마련한 이번 공모전에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해주셔서 고맙다”면서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에너지(전기)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수상작들은 한국전력 유튜브(youtube.com/kepconewmedia)와 미디어콘텐츠공모전 사이트(kepcococontest.co.kr)에서 볼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상의 中 화동 수출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2018 중국 화동 수출입상품 교역회’ 한국관 참가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화동 수출입상품 교역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로 3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상하이(上海) 신국제전시장에서 열리며, 올해로 28회째를 맞는다.
중국 상하이시 등 9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생활소비품, 공예품, 의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과 선물용품 등이 전시된다.
지난해에는 3900여 기업이 참가했고, 전 세계 각지에서 약 2만3000명의 바이어와 참가객이 방문하는 등 박람회 참가기업에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제공됐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박람회 부스임차료의 80%, 참가자 항공료의 70%(최근 3년 이내 참가기업은 50%), 바이어 상담을 위한 통역료 100%와 편도 물품 운송료 100% 등을 지원받게 된다.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gicci.or.kr/)에서 참가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350-5862. /김대성기자bigkim@

Table with columns: Rank (등위), Participation Fee (당첨금(원)), and Participation Rate (당첨자수). It lists the top 5 winners of the media content contest.

Advertisement for 'Korea Protection' (국제보청기) featuring a green background, a large ear ic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2017-2018 New Year Park Hotel'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featuring a festive background with gold stars and ornaments, and details about package deals and a performance discount.